

미래 성장 설계...장흥군, 신규 사업 발굴 나선다

군, 업무 목표·추진전략 보고
국립 노벨문학센터 건립 등
156개 신규 현안 사업 공유

장흥군이 국립 노벨문학센터 건립 등 2026년 신규 현안 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군은 최근 업무 목표 및 추진전략 보고회를 열고 104개 추진전략과 156개 신규 현안 사업을 공유했다. 주요 신규 검토사업으로는 국립 노벨문학센터 건립, 장흥형 웰니스 관광 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첨단 스마트 양식장 조성, 원격·비대면 진료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다. 장흥군은 실현 가능성을 검토, 사업 타당성 등 논리 강화, 내용 보완 등을 거쳐 이들 사업에 대한 국비 건의에 나설 계획이다. 장흥군은 올해 국·도비 및 공모사업에서 총 167건이 선정돼 총사업비 기준 2352억원을 확보했다. 전남기록원 건립 유지(645억원), 천연물 소재



김성(앞줄 왼쪽) 장흥군수가 최근 열린 ‘업무 목표 및 추진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350억원), 부산 금자지구 다목적 농촌 융수개발사업(190억원), 회진면 행복한 삶터 조성(74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34억원) 등이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해 열악한 재정 여건을 보완하고, 연말에 집중된 각종 기관평가에도 대비해 주기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

하고 업무 추진을 장려하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부서가 고심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했다”라며 “내년에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빈집을 ‘관광·문화·창업공간’으로...강진군, 빈집재생사업 본격 추진

전문가 워크숍 개최
병영면 10호 내외 활용

강진군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과 관련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사업은 2027년까지 진행되는 3년차 사업으로, 강진군은 지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승인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지인 병영면 한골목길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사업 총괄 자문을 맡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문수 박사와 우석대 김승근 교수 등을 비롯해 주민·청년단체, 강진군 농어촌개발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사업계획 브리핑을 시작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 현안을 공유하고 오후에는 빈집 등 병영면 사업대상지를 답사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올해 농식품부가 처음 시작한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은 농촌 빈집 밀집구역의 빈집 10호 내외를 활용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생활인구를 유입해 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문가들이 사업대상지인 강진군 병영면의 사업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사업 추진 과정에 민간을 적극 참여시켜 향후 빈집 운영·관리 등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강진군은 ‘삶과 여행이 공존하는 병영잔재’라는 비전을 목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공동 이용시설과 편의공간을 조성하고, 농촌다움과 병영만의 특색을 내세운 관광·문화·창업 공간 등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한다는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워크숍은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실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행정·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병영면이 농촌빈집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생필품 신고 황금마차가 갑니다...함평군, 이동식 ‘나비장터’ 운영

2027년 12월까지 시범 운영
스마트폰 교육·보건 서비스도

함평군이 농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을 받아 농촌 이동장터인 ‘황금마차 나비장터’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 사업은 함평·장성, 전북 완주, 경북 의성, 충북 청주 등 전국 5개 시·군에서 우선 진행하며,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 3.5t 트럭에 생필품을 싣고 방문한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다. 함평군은 나비골농협과 주민위원회와 협력해 해보면을 중심으로 주 5일, 5개 노선, 마을별 월 2회 순회하는 황금마차 나비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나비장터는 생필품 공급뿐만 아니라 칼집이, 영상편지 이벤트, 스마트폰 교육, 보건 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 공동체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함평군의 ‘황금마차 나비장터’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송미령(왼쪽 세번째) 농식품부 장관과 이상익(뒷줄 맨 오른쪽) 함평군수 등이 최근 해보면 상모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전망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동장터는 주민 소통과 공동체 회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

로도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어가는 정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독감 무료 예방 접종 받으세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화순군이 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3가 백신으로 시행한다. 3가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은 B형 아미가타 군주가 제외된 백신이다. 4가 백신과 비교해 효과성과 안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3가 백신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회 접종자 기준)는 22일 ▲임신부는 29일 ▲75세 이상 어르신은 10

월 15일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실시한다. 특정 기간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대상자를 분류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12개 면 보건지소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접종이 가능하다. 박미라 화순군보건소장은 “독감 예방접종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고위험군 대상자가 기한 이내에 접종을 완료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국향랜드’ 함평의 가을 정취 전국에 알린다

11월 10일까지 후기 이벤트

함평군이 가을철 함평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후기 이벤트 ‘함평어탐’을 진행한다. 함평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10일까지 ‘함평어탐’ 가을 관광 후기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한 여행 후기를 공유하며 함평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관광객들은 가을의 특색이 담긴 사진 2장 이상과 후기를 함평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커뮤니티)관광후기)에 게시하면 된다. 게시된 후기는 향후 함평 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0월24일부터 11월9일까지 ‘마법의

국향랜드’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연계해 관광객 참여를 더 활성화하고 가을철 함평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참여자 중 20명을 선정해 3만원 상당의 함평 농특산물 선물 세트를 증정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중순 함평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의 가을을 직접 경험한 관광객들의 따뜻한 후기가 또 다른 방문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추석·영산강축제 ‘상생 페이백’ 행사

최대 30% 모바일 지역 상품권 지급

나주시가 추석 명절과 영산강축제 기간 골목상권과 상점이 활성화를 위해 ‘상생 페이백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나주시와 참여 상점이 할인 금액을 공동 부담해 소비자에게 최대 30%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캐시백은 모바일 지역 상품권 플랫폼 ‘chak(착)’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상점은 나주시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가맹점 가운데 행사 기간 10% 이상 할인이 가능해야 한다.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최대 500곳까지 선정하며 신청 업소가 과다할 경우 할인율과 업종 안배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19일까지다. 나주시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담양군, 청년마을활동가 9명 교육 수료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 청년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과정은 지난 8월18일부터 총 6회 차로 운영됐으며, 수강생 10명 중 9명이 수료의 기쁨을 나눴다. 이번 교육은 마을을 이해하고 청년이 마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청년들은 ▲마을공동체의 이해 ▲청년마을활동가의 역할과 비전 설계 ▲마을자원조사 및 기록 ▲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 돌봄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마을과 자신을 잇는 연결고리를 찾았다. 수료식에서는 선배 마을활동가가 직접 마을 현장에서 겪은 경험담과 활동의 보람, 어려움까지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한 수료생은 “교육을 통해 마을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라며 “앞으로 할 작은 역할부터 고민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순에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장은 “청년들이 앞으로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며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n@

“산책하며 장도 봐요”...장성호 수변길마켓 재개장

장성군이 하반기 장성호 수변길마켓을 재개장했다. 장성호 수변길마켓 위치는 장성호 주차장(장성을 용강리 163번지) 댐 방면이다. 장육 9동 규모로, 총 15개 업체가 참여한다. 품목은 사과, 감, 포도 등 장성을 대표하는 명품 과일과 농산물, 공예품 등이다. 농가 직거래로 판매해 합리적인 가격을 지닌 것이 장점이다.

결제 시에는 현금, 신용카드,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장성호 수변길 방문객은 입장료를 내고 돌려받은 3000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수변길마켓에서 쓸 수 있어 편리하다. 매주 토요일일과 공휴일에 운영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는 12월 28일까지 문을 열 계획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